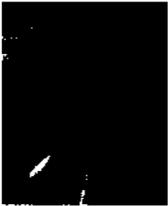


## 노년의 성

#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이 건강한 성의 밑바탕

호르몬은 보다 현실적인 에이즈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2007년 안혜문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의 여로 정하여 기획을 연재한다.



**임필빈**  
여의도성모병원 비뇨기  
과 의사, 성에세이 <마  
니 여지가 어디 처녀가:  
동아일보사> 저자

중학교 동창 소영(가명)이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다. “필빈아, 우리 아버지가 너보고 섹스할 때 쓰는 젤리 빨리 보내라고 나한테 매일 성화서, 너 젤리 보내준다는게 벌써 몇 달 전이니?”

“아! 미안. 몇 달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길래, 그냥 알아서 구입하셨나 했지. 내가 요즘 통 바빠서 니네 집에 갈 시간이 없었어. 어쩔 너의 아버지는 칠순이 되어서도 그렇게 왕성한 성생활을 하시냐. 소영아 니네 아버지 반만 닮아라. 그리고 이번 주말에 꼭 가지고 갈게. 죄송하다고 전해드려라.”

소영이로 말하자면 결혼한 지 5년째이긴 하지만 남편과의 성관계에 관해서는 초보나 다름없는 무늬만 5년차인 주부이다. 일반적으로 삽입해서 바로 5분내에 성관계를 끝내는 남편 때문에 항상 성교중에 시달려왔던 소영이는 결혼 3년동안 줄곧 격달에 한번꼴로 성관계를 갖는 정도로 성관계에 흥미가 없었다.

그러다 결국 아기를 낳겠다는 일념 하나로 우여곡절 끝에 임신에 성공한 소영이는 작년 봄에 자기 국화빵인 딸을 낳게 되었고 드디어 올 봄에 딸의 돌잔치를 열게 된 것이다. 돌잔치에 초대받아 갔다가 그 곳에서 소영이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는 날 보자마자 즉석에서 비뇨기과 상담을 요청하셨다.

“필빈아, 나랑 상담 좀 하자. 내가 요즘에도 이들에 한 번씩은 소영이 엄마랑 관계를 갖는단다. 그런데 요즘에 소영이 엄마가 밀(질)에서 물(윤활액)이 안나와서 맨날 아프다고 하고 잘 안되거든. 난 2~3일에 한번씩 사정을 안하면 몸이 찌뿌둥해서 말이지. 필빈아! 뭐 좋은 방법 없을까?”

“발기는 잘 되시나요?”

“뭐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지. 저번에 내가 준 비아그라를 먹었을 때는 확실히 더 잘되긴하더구나. 하지만 난 아직 약의 힘을 빌려서 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도 잘 되는 편이니까.”

불과 10 여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성관계를 하셨다던 소영이 아버지, 칠순의 나이에도 왕성한 성생활을 하시는 소영이 부모님께 경이감마저 들었다.

몇 해 전까지도 계속 수영으로 몸 관리를 하시고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소영이 아버지야말로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었다.

“아버님! 어머니가 폐경이 되어서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성관계 할 때 질 윤활액이 안나오는 것이거든요. 호르몬 요법은 골다공증 예방도 되니까요. 호르몬 요법을 받아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소영이 아버지 같이 노년이 되어서도  
왕성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욱 활동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제가 수용성 젤리를 드릴 테니 성관계시에 사용하세요 젤리가 윤활역할을 해서 삽입 시에 어머니가 훨씬 덜 아파하실 꺼예요.”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니?”

“약국에서 구할 수 있어요.. 약국에서 파는 것은 용량이 작은 것이니 제가 다음에 올 때 수용성 젤리 한 박스 갖다 드릴게요 두고 두고 쓰세요.” 나의 이런 약속을 철썩 같이 믿으셨던 소영이 아버지께서 약국에서 구입하시기가 썩 스러우셨는지 계속 내가 들고 오기만을 바라시면서 소영이를 들들 볶고 계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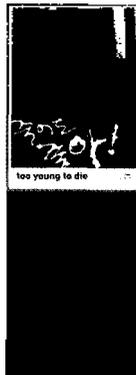
요즘 서울 종로에 탑골공원에 가면 박카스 아줌마 (노인들에게 박카스를 접대하면서 윤락행위를 하는 아줌마)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윤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노인들도 엄연한 성의 주체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소영이 아버지 같이 노년이 되어서도 왕성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욱 활동적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남성들의 경우 사춘기 이후 남성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50대로 접어들면서 남성호

르몬저하로 인한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즘은 남성들도 남성호르몬 보충 요법을 통해서 다시 젊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젊어서부터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절한 식이요법, 금연, 금주,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이 노년이 되어서도 왕성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또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비아그라와 같은 약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질윤활액이 부족하여서 성교통이 있을 때 수용성 젤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적극적인 성생활을 하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노년의 성을 소재로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 한 장면